

/지역 단신/

농협강진지부 농업인과의 대화



농협강진지부 주최 제 29회 코리아마트프린인 '농업인과의 대화'가 지난 25일 한국농촌공사 강진·완도지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

이날 포럼은 이강삼 농협중앙회 강진지부장의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응답 순으로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이영호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 지역민들의 의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목포보호관찰소 준법운전 교육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서호원)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준법운전 수강명령 대상자 21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수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준법운전 수강 프로그램은 지역 도로교통 및 차량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의 심각성과 도로교통법·자동차보험관련 법령 소개 등 준법운전 교육을 위해 실시됐다.

또 교통법규 위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습관성 음주 행태, 가족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목포=이성희기자 lsh@kwangju.co.kr



蛇頭오이, 2m 이상 자라요 <사투>

무안농기센터 희귀작물 상품화 박차

무안군 농업기술센터가 뱀 모양의 청경야채가 2m 이상 자라는 사두(蛇頭) 오이(사진)를 재배해 농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두오이는 오이 특유의 맛을 내는 열대성 작물로 인도·필리핀 등지에서 카레 원료나 샐러드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사두오이는 보통 오이에 비해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사두 피클과, 사두장아찌 등 다양한 음식재료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

한편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상용호박 및 1.5m 크기의 식용 박, 못난이호박, 80kg이상의 초대형 수퍼호박 등 희귀작물의 상품화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짜릿한 손맛! 단속쫄이야

백도는 지금 불법낙시와의 전쟁

새벽 밤바다를 뚫고 백도 상륙을 시도하려는 낙시꾼들과 이를 막기 위한 해양경찰들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백도를 상륙하는 낙시꾼들이 급증하면서 해경이 굶머리를 앓기 시작한 것은 2년전부터. 해경의 끊임없는 지도활동과 단속강화에 불구해 해가 갈수록 무단 상륙자가 늘고 있다.

29일에도 백도에 상륙한 낙시꾼 3명이 검거되는 등 울타리에서 벌제 39명이 단속돼 이미 2년전 한해 검거 숫자를 넘어섰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004년 24명이 검거된 데 이어 2005년에는 49명으로 최근들어 무단상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어립잡이 수백명이 백도 일대에서 불법으로 낙시를 즐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낙시꾼들이 백도 상륙을 포기하지 않는데는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감성돔 등 고급 어종의 대어가 잡혀

손맛을 잊을 수 없기 때문. 또 일단 상륙만 하면 경비정이 가까이 오더라도 바위 틈새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여기에 백도 비경에 대한 호기심과 적발되도 50만원에서 80만원 벌금형이라는 솥방망이 처벌이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데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도 상륙을 위해 어선 한척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은 일반 선박 임대료보다 4배 이상 비싼 1백만원선. 그러나 최근 고급어종이 많이 잡힌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비싼 어선 임대비용을 감수하면서 불법 낙시를 감행하려는 전국 각지의 낚시꾼이 몰리고 있다.

무단상륙이 계속되자 여수해경은 낙시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취약시간대 주요 길목에 잠복근무를 하는 등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해경은 아예 250톤급과 500톤급 경비정 2척을 백도 해역에 상주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범의 경우 현행법으로 체포해 구속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가명승지인 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에 앞서 자연자원과 어족자원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백도에서 낙시 행위로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불법상륙 급증... 울타리 39명 검거

해경, 경비정 상주배치·구속 검토



국가명승지 7호인 백도 매미우 일대 모습. 해경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백도 일대에서의 불법 낙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장흥지역 건강검진율 23% 불과

대상자 1만여명중 2,400명만...공직자 특히 부진

지난 9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과 더불어 성인병과 암 등의 질병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제도가 장흥지역 주민의 무관심과 당국의 대책 미흡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검진대상 1만 401명 가운데 8월 20일 현재 검진자는 2천475명으로, 23.8%의 검진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특히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건강검진 실적도 극

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대상자 662명인 장흥군청의 경우 8월 현재 16명이 검진을 받아 2.4%의 진료율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장흥경찰서는 총 130명 중 단 한 명만이 검진을 받아 0.8%, 장흥교육청은 486명 가운데 38명(7.8%) 장흥교도소는 163명 중 5명(3.1%)에 불과했다.

이밖에 장흥지역 농·수·축협 가운데 안양농협을 제외한 대부분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국가기관인 법원(장흥지원)과 검찰(장흥지청)은 건강검진율이 76%와 90%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이 일선 지역 공직자 및 일반사업자와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저조한 것은 평소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건강검진 제도와 지역 내 검진기관(병·의원)에 대한 불신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건강검진은 직장인 사무직은 2년, 비사무직(노무)은 1년 주기로 실시되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 짝·홀수년도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장흥=김영희기자 kykim@

새 얼굴

“군민이 주인되는 살맛나는 담양 건설”

박정규 담양군 부군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 화합과 상생의 담양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박정규(59) 신임 담양부군수는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 책임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의 역량을 한데 결집, 군민이 주인 되는 살맛나는 담

양 건설을 다 같이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광주가 고향인 박 부군수는 전남도 자치행정과장, 고흥부군수를 거쳤으며 가족으로는 모금회(53) 씨와 2녀가 있다. 취미는 등산 /담양=채재희기자 jhw@



“선진 자치단체 발돋움 밑거름될 것”

임상원 보성군 부군수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보성군이 가장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신임 임상원(57) 보성부군수는 “전공직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풍요로운 녹색의 땅·희망찬 보성’ 건설이라는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성 출신인 임 부군수는 전남도 경제통상실 기업경제과장과 강진 부군수를 역임했다. 가족은 박경숙씨와 1남 2녀. 취미는 등산. /보성=안구일기자 giahn@



해남보건소 암 무료검진

해남군보건소가 암 무료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암환자 통증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보건소는 8월25일 현재 총 6천 224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 424명의 이상자가 전문 의료기관에서 2차 정밀 검진 및 치료를 받았으며, 8명의 암환자가 발견되어 수술 후 치료중이다.

보건소는 또 폐암 환자 42명에게 4천 2백만원, 의료급여수급 암환자 60명에게 3천 8백만원, 소아 암 5명에게 1천 4백여만원 등 총 107명에게 1억여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해남=박정목기자 jopark@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새단장

여수산업단지 확장단지 진입로가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길로 새단장됐다. 아름다운 여수21실천협의회와 여수산단공정장협의회는 사업비 3억원을 들여 고막~화치마을 1.6km구간에 지난해 12월부터 메타세콰이아 400그루를 식재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도 최근 여수산단 진입로 4km 도로변에 울해까지 메타세콰이아 1천300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여수=박정목기자 jopark@

가을전어 참 맛 보러 오세요

내달 15~17일 광양 망덕포구서 전어축제

제 8회 광양전어축제가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15일 저녁 섬진강 한밤의 음악회를 시작으로 16일 노젓기 대회, 길놀이, 전어잡이 노래 시연, 평양민속예술단 공연, 전어비빔밥 만들기 및 시식회 등이 펼쳐진다. 17일에는 전어 사생대회, 전어찜기, 전어 요리 설명회 및 시식회 등이 열린다. /광양=김준희기자 chkim@

와 그들을 배경으로 한 무료 사진 촬영 세트를 운영하고 광양 관광사 진 거리진, 광양특산물 판매장 전시 및 판매 행사가 열린다.

광양시 관계자는 “가을 전어 머리에겐 개가 서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 전어가 가장 맛이 있다”면서 “참가자들은 전어의 참맛과 함께 인근 섬진강에서 나는 재첩 요리와 광양만과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 풍광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준희기자 chkim@

해남군 작년 살림규모 3,408억원

군민 1인당 빛 5만원

해남군이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재정 운영을 공개했다.

군은 최근 공무원과 주민 등 14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살림 규모와 채무액,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행사, 축제 경비 집행내역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공개된 해남군 살림 규모는 3천408억

원로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 2천777억 원에 비해 631억 원이 많지만 자체 수입은 992억 원으로 48억 원이 적어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 재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채무가 173억 원이지만 순수 군비 채무액은 45억 원으로 군민 1인당 5만원의 빛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채무 비율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박정목기자 jopark@

1석2조 ‘명함 홍보’

나주시 반남면 큰 효과

나주시 반남면(면장 김근용)이 공무원 명함을 지역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남면은 나주시와 반남면을 알릴 수 있는 문구, 반남면 문화유산

사진, 자신의 좌우명, 시정구호, 역점시책, 전하고 싶은 글 등이 새겨진 명함을 제작했다.

반남면 일원재 총무담당은 “명함에 사진과 홍보문안 등이 들어가 있으면 민원인을 대하는데 친절한 공무원상을 확실히 하게 될 것”이라며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A row of various local advertisements for services like legal consultation, medical care, and business services.